

보험사 지급여력 개선됐지만… 생보·손보 업권별 ‘양극화’

금감원, 2025 건전성 살펴보니

보험사 K-ICS 비율 212.3%
전분기 말 보다 1.5%p 올랐지만
생보 4.4%p 오르고, 손보 2.2%p ↓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키스)비율이 개선됐지만 업권별 온도차는 뚜렷하게 갈렸다. 전체 평균은 올랐지만 손해보험사 K-ICS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보험사 자본 체력을 평균값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K-ICS 비율은 212.3%로 전분기 말 210.8%보다 1.5%포인트(p) 상승했다.

키스비율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전체 평균만 보면 보험업권의 건전성

이 개선된 것 처럼 보이지만 업권별 흐름은 달랐다. 생명보험사의 K-ICS 비율은 205.8%로 전분기보다 4.4%p 오른 반면, 손해보험사는 221.9%로 2.2%p 하락했다. 평균 개선에도 생보와 손보의 자본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

K-ICS 비율이 오른 것은 가용자본 증가 폭이 요구자본 증가 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보험사의 가용자본은 284조원으로 전분기보다 9조3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33조8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가용자본 확대를 모두 기초체력 개선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보험계약마진(CSM) 감소와 결산배당은 가용자본을 줄이는 요인이었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가 이를 상쇄했다. 보험사 건전성 지표 개선에 자본시장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주가 상승은 보험사 보유 주식가치를 높여 가용자본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주식위험액을 확대해 요구

자본도 키운다. 금감원도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위험액 증가가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액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요구자본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증시 랠리는 보험사에 일방적인 호재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자본에는 플러스 요인이지만 위험기준 자본제도 아래에서는 요구자본도 함께 키우는 변수다. 전체 K-ICS가 개선됐음에도 손보업권의 비율이 하락한 배경에도 시장위험과 회사별 자산 포트폴리오, 보험위험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별로도 허비가 엇갈렸다. 생보사 중 교보생명은 226.0%로 전분기보다 20.8%p 올랐고 삼성생명은 198.0%로 5.2%p 상승했다. 반면 한화생명은 157.5%로 0.7%p 하락했다. 손보사에서는 삼성화재와 DB손보, 메리츠화재가 하락한 반면 현대해상과 KB손보는 상승했다. 같은 업권 안에서도 자산 구성과 시장위험 노출도에 따라 K-ICS 방향이 갈렸다.

K-ICS 총량뿐 아니라 자본의 질도 중

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7년부터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 비율 제도를 시행하고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했다. 기본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처럼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을 중심으로 한다. 반면 보완자본은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처럼 손실흡수성에 제약이 있는 자본을 포함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K-ICS 비율을 관리해 왔다. 기본자본 규제가 본격화하면 단순히 자본성증권으로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 K-ICS 비율이 높더라도 기본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본 체력이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보험사가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이호성 하나은행장(가운데)이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함께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기보·신보 청년기업에 자금지원 총 2000억 보증 대출

하나은행이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청년기업에 총 200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을 공급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청년기업 도약을 위한 Y-BRIDGE 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사업가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청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만 39세 이하 청년 개인사업자와 청년이 최고경영자(CEO)인 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을 공급한다. 보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은 100%가 적용된다.

청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기금에 납부하는 고정보증료 0.3%도 하나은행이 전액 지원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대표와 개인사업자, 청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고 연 6.5%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내맘적금 금리우대쿠폰’을 5만장 한도로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카드론 조이니 ‘고금리’ 현금서비스·리볼빙 잔액 증가

카드사 9곳, 7월 카드론잔액 42.8조
정부 가계대출 관리에 두달째 하락
급전 필요한 서민들 이자부담 확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여파로 카드론 잔액이 두 달째 감소세다. 반면, 현금서비스, 리볼빙 잔액은 증가했다. 금리가 더 높은 단기카드 대출로 수요가 쏠리며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신용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7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7957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내림세다. 지난 5월(43조2534억원)에서 6월(42조9093억원) 3441억원 줄더니, 7월 다시 1136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여파가 지속되면서다. 앞서 금융감독은 지난 5월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서울 시내 한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붙어 있다. /뉴스시

주요 카드사를 소집해 카드사 총량 관리 목표를 준수달라 적극 당부한 바 있다.

반면, 현금서비스 등 단기 카드 대출 서비스는 증가했다. 지난달 현금서비스 잔액은 7조251억원이다. 전월 대비 2409억원 오르며 세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5월에는 3073억원, 6월에는 2804억원 확대됐다.

결제성 리볼빙 잔액도 확대되고 있다.

리볼빙 잔액은 전월 대비 955억원 오른 6조8759억원이다. 지난 6월에 322억원 확대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증가 폭이 약 3배 늘었다.

카드론 대신 현금서비스와 결제성 리볼빙 잔액이 확대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NH농협카드를 제외한 8개 주

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각각 18.16%, 17.38%로 집계됐다. 반면,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15% 수준으로 형성됐다.

취약 차주 금리 부담은 더 심하다. 신용평가점수 700점 이하 차주들의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19.16%다. 결제성 리볼빙은 19.03%다. 법정 최고금리(20%)에 육박한다. 같은 구간 카드론 평균 금리는 17.45%다.

한편, 향후 금융당국의 카드론 관리 강화 기조는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회의를 열고 총량 목표치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규제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의 카드론 한도 확대 요청에 따라 당국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각 카드사에 새로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도 전달할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wotis4187@

이번주 전국 10개 단지서 5430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모델하우스 총 5곳서 오픈 예정

8월 넷째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43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649가구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쌍용더플래타넘서대문’, 경기 부천시 상동 ‘상동역롯데캐슬시그니처’, 광주 북구 월출동 ‘제일풍경채점단3지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롯데건설은 경기 부천시 상동에 주상복합 아파트 ‘상동역롯데캐슬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지하 8층~지상 최고 49층, 7개동, 전용면적 84~192㎡, 총 1859가구 규모다. 지하철 7호선 상동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로 인근 부천중

합운동장역에는 GTX-B노선(2031년 개통 목표)과 GTX-D노선(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현대백화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상동호수공원, 부천시청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상일초·중, 상원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도 갖췄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브라운스톤월곡센트럴’, 경기 성남시 신현동 ‘성남북정2A1신현하망타운(공공분양)’,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9개동, 전용면적 59~136㎡, 총 19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NH농협은행, 을지연습서 ‘위기대응 훈련’

사이버 위협 대응태세 등 점검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6 을지연습’에 참가해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농업인과 국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위기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에서 NH농협은행은 사이버 위협 대응태세를 비롯해 전시 금융지원,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금융업무 취급 등 다양한 우발상황을 가정한 분야별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복합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핵심 금융

업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영업 연속성계획(BCP)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대체사업장 가동, 핵심업무 3시간 이내 복구, 영업점 PC 및 단말기 복구훈련 등을 통해 위기 발생 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은행장이 직접 훈련을 주관해 신속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을 실시하고,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조치절차를 숙달했다.

NH농협은행은 연습 종료 후 자체 사후강평을 실시해 훈련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과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2027년도 총무실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형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5967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659건을 공개한다.

이번 매각 대상은 부동산 1609건, 동산 50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97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97건을 포함해 총 356건이 공개된다. 특히 감정이 70% 이하인 물건도 879건 포함한다.

압류재산 공개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개 입찰시에는 관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입찰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